

고유의 우리말 찾기 남북이 함께 나서야



남북한이 말마저 달라지게 되면 이방인에 가까운 장벽을 만들게 될 것인데, 이것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기회가 잦으면 잦을수록 그들의 말은 그만큼 동질적인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이질적인 것이 된다. 여기 각 언어의 차이, 방언의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가 있다. 남북한이 서로 끊긴 지 어언 반세기가 지났다.

표준 발음법 : 그들은 문화어의 기반을 평양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도 약간 달라져 있다.

‘의’의 발음은 남한에서는 말 첫머리에 있어서는 겹으로 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개 ‘에’로, 또는 ‘으’나 ‘이’로 다양하게 발음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모두 겹소리로 규범화해 버렸다. ‘위’는 우리는 겹과 홑의 두 소리로 내고 있으나, 그들은 홑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ㄹ, ㄴ’ 첫소리를 표기하는 것은 그러한 발음을 내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동, 락하산, 리

론, 라지오, 로케트’나, ‘노소, 니탄, 뉴톤’은 모두 글자대로 발음된다. 또 한자말의 ‘ㄴ+ㄹ’도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ㄴ’과 ‘ㄹ’소리를 그대로 내게 한다.

전력량, 보관료, 생산력, 생산량 따위.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말의 발음을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는 듯하다. 즉 '덩거당, 덩서방, 하디(아니하다)' 따위 발음을 평양식으로 규범화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말다듬기 : 그들의 말다듬기 이전에 있어서는 모든 한자말을 한글로만 적었기 때문에 서투른 한자말이 매우 많아서, 우리들에게는 매우 어색하다. '초물제품, 온반, 감모나다, 파가마니, 매개인, 자초에, 포전, 불피코, 실생림, 오침' 따위 한자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는 데다가, '지하족, 편상화, 하조(하다), 하조작업, 그가 오는 차제로, ...' 와 같은 일본말에서 온 한자말을 그대로 써서 아주 듣기 싫게 되어 있다.

거기에도가 중국말을 우리 한자 발음으로 고친 '공민계급, 화거침' 과 같은 말, 그리고 '구루빠, 빨란' 과 같은 러시아말이 섞여서 그들의 말도 남한말 못지 않게 매우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모양이다.

남북한의 말이 혼란에 빠져 있기는 공통적이다. 그러므로 남한에서는 한글 학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심지어는 학생들, 초등학교 어린이들마저 국어 정화를 부르짖고 있고, 한글 학회에서는 《쉬운말 사전》을 내기까지 했는데, 북한에서도 어렵고 서투른 말을 쉬운 고유한 우리말로 바꾸는 말다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 양쪽의 말다듬기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 결

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우리의 깊은 관심 거리가 있다.

남북한은 다 같이 고유한 우리말의 어근으로써 한자말이나 다른 외래말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다듬어진 말은 다 알기 쉬울 뿐 아니라, 서로 같아진 것이 많이 있다.

앞에 들어 보인 어색한 한자말들을 다듬어 놓은 것을 보면, '초물제품' 은 '고공품' 을 이듬인데 이것을 '쥘제품' 으로 다듬고, '온반' 은 '더운 국밥', '감모나다' 는 '축나다', '파가마니' 는 '헨가마니', '매개인' 은 '저마다, 사람마다', '자초' 에는 '처음에, 처음부터', '포전' 은 '논밭', '불피코' 는 '갈데없이, 반드시', '실생림' 은 '씨앗숲, 씨자란숲', '오침' 은 '낮잠' 으로 다듬어 놓았고, 일본말의 찌꺼기 같은 '지하족, 편상화, 하조, 차제로' 따위는 각각 '로동화(신), 목구두, 짐꾸리기, (그가) 오자마자' 로,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말로 다듬어 놓았다. 그 밖에도 '재갈이, 굴설하다' 와 같은, 무슨 뜻인지 모를 말들도 '두번갈이, (땅을) 파다' 로 다듬었으니, 이렇게 되면 남북한의 말의 차이는 점점 좁아질 것같이 생각된다.

또 한글 학회의 《쉬운말 사전》과 그들의 다듬어 놓은 말은 같은 것이 많이 있음을 발견한다. (다음 말들은 모두 양쪽이 같은 것이다.)

- 개재하다 - 끼어있다(끼어들다)
- 첨가하다 - 덧붙이다. (덧)보태다
- 개방하다 - 열어 놓다
- 취급하다 - 다루다(다루어지다, 다루게 되다)
- 빙자하다 - 핑계하다(~삼다)
- 발로하다 - 드러나다(들춰내다)
- 선회하다 - 빙(빙) 돌다
- 매점 - 가게
- 주석 - 풀이
- 도해 - 그림풀이
- 보루지(~가미) - 판지(판종이)
- 인화지 - 사진종이
- 홍수 - 큰물
- 침수하다 - 물에 잠기다
- 색인 - 찾기(찾아보기, 찾아내기)
- 템뿌라 - (기름)튀김
- 재단 - 마름질(마름개질)
- 건망증 - 잊음증(잊음기)

정미 - 알속(실속, 알짬)
 전정거(~툼) - 가지(치기) 툼
 선불하다 - 미리 치르다
 집요하다 - 끈덕지다, 끈질기다
 다음과 같은 말들은 꼭 같이 다듬어지지 않았으나, 서로 비슷해서 양쪽이 서로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 침전하다**
 - (남) 앙금았다
 - (북) 가라앉다, 앙금이 앉다
- 방불하다**
 - (남) 비슷하다
 - (북) 비스듬하다
- 파급되다**
 - (남) 미치다, 번져가다
 - (북) 미치다, 번지다, 퍼져가다
- 배합하다**
 - (남) 섞다, 어울러 맞추다
 - (북) 섞다, 어울러 섞다
- 유인하다**
 - (남) 꺾다, 꺾어내다
 - (북) 꺾다, 호리다
- 비등하다**
 - (남) 끓다, 끓어오르다
 - (북) 끓어오르다, 들끓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듬어져서 양쪽이 전혀 다른 말을 쓰게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으나, 양쪽이 다 고유한 우리말로 다듬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되지 않는다.

- 날조하다**
 - (남) 가짜 만들다, 생으로 꾸미다
 - (북) 꾸며내다, 지어내다
- 편성하다**
 - (남) 짜다, 엮다
 - (북) 짜다, 묶어짜다, 별리짜다
- 과중하다**
 - (남) 너무 무겁다
 - (북) 지내 무겁다, 힘겁다, 벽차다, 아름차다

- 축박하다**
 - (남) 닥치다, 바짝 닥치다
 - (북) 몹시 급하다
- 베레모**
 - (남) 베레모
 - (북) 꼭지모자
- 벤도**
 - (남) 도시락
 - (북) 밥곽, 곱밥
- 방출하다**
 - (남) 풀어내다
 - (북) 내보내다
- 조월하다**
 - (남) 이월하다
 - (북) 넘기다, 넘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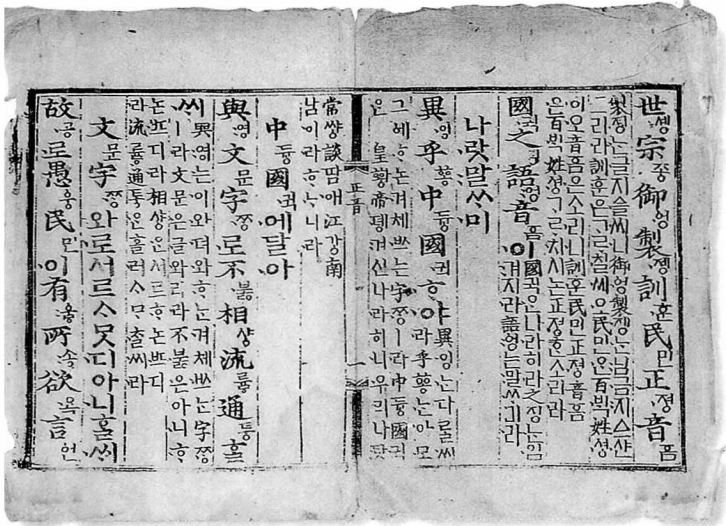
- 분무기**
 - (남) 뿜개
 - (북) 뿌무개
- 연륜**
 - (남) 나이테
 - (북) 해돌이, 해무늬

이와 같은 현상은 학술용어에서도 볼 수 있다. 우선 말본 용어를 보면,

- 단어 - 낱말, 주어 - 임자말, 술어 - 풀이말, 규정어 - 매김말, 감동어 - 느낌말, 주성분 - 으뜸성

◆ 한글만을 사용한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





◆ 1459년 발간된 훈민정음언해본.

분, 부성분 - 딸린성분, 어순 - (말)차례 와 같은 말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고유한 우리말 술어와 같으나, 시제 - 시간, 과거 - 지난 시간, 현재 - 지금시간, 미래 - 오는시간, 선과거 - 지지난시간, 직접화법 - 바로움김법, 간접화법 - 풀이움김법, 상황어 - 결단말, 보어 - 보탬말, 독립어 - 외판말따위는 우리의 그것과 달리 다듬어졌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한자말들이 순 국어로 다듬어졌다.

자작업 - 스스로 (일)하기, 스스로 배우기

구답시험 - 말시험

순차적공고화 - 차례다짐

자기복무 - 제일제하기

한자말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다듬은 말로는 대충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다.

농업 용어에서도,

전야작업 - 들일

역우 - 부림소

따위 말은 그 뜻이 분명하게 된

다.

마무리 : 반세기 이상을 서로 독자적으로 걸어 온 남북한의 말의 모습은 이리하다. 불행 중 다행히도 서로가 같은 글과 말의 토대 위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 심각한 언어의 장벽이 만들어지기에 이르지는 않은 것 같다.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양쪽의 기반이 되어 있고, 평양말을 토대로 한다는 '문화어'도 그 근본적인 토대는 아직 서울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맞춤법을 양쪽이 독자적으로 수정해 온 결과는 부분적이거나 차이가 생겨나 있고, 표준 발음법에도 서울과 평양말의 차이가 차츰 두드러지게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말다듬기에서는, 서로 독자적이기는 하나, 양쪽이 같은 방침 아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의 의사통달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작업은 주로 민간 단체에 의해서 제의되고 있을 뿐인데, 북한에서는 강력한 정치의 힘으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말다듬기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한자말을 대폭 고유한 우리말의 어근으로 같음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공통된 한자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듬어져서 말의 장벽을 더욱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보아 넘길 수 없다.

서로가 말을 주고 받는 기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서로의 말은 거리가 생겨나고, 말의 차이는 드디어는 서로의 사고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조그마한 반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언이 발달하여, 서로 다른 성격을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자그마한 차이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의 씨가 되는 일이 있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사상, 서로 다른 정치 체제 밑에서 다스려지면서, 말마저 달라지게 되면 그 사고 방식은 더욱 더 달라지게 되고, 드디어는 이방인에 가까운 장벽을 만들게 될 것임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한이 정치적인 대화에 앞서서, 우선 말과 글(그것도 정치적 용어를 제외한)의 통일을 위해 대화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아직까지는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끝>